

“관객과 소통하는 ‘5분의 미학’ ...광주 곳곳 빛으로 살아났으면”

[이토록 유익한 인터뷰]

이이남 미디어아티스트

동서양의 명화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미디어아트로 주목받는 이이남 작가는 '제2의 백남준'로 불리는 세계적인 미디어아티스트다. 세계 현대미술의 흐름을 바꾼 거장 백남준 작가의 후예답게 그의 작품은 늘 새롭고 놀랍다.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지만 그의 작품에 담긴 따뜻한 감성과 다정함은 예술의 쓸모가 왜 중요한지 느끼게 해 준다. 작은 시골마을에서 뛰어놀던 꿈 많은 소년이 만들어낸 아름답고 멋진 신세계.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융합적 작품을 통해 미디어아트의 매력을 전하는 이이남 작가를 만나보자.

Q.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올해 초부터 바쁜 일들이 많았습니다. 광주 양림동에 있던 작업실을 매곡동으로 이사하면서 스튜디오 재정비를 하느라 분주하게 지냈습니다. 특히 올해가 광주비엔날레 30주년이라서 전시 준비도 한창입니다. 지난 14회 비엔날레에 이어 올해도 양림동 '이이남스튜디오'에서 국가관 파빌리온 전시가 예정돼 있습니다. 파빌리온 전시는 광주비엔날레를 예술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광주시립미술관을 비롯해 지역 미술관들을 전시장으로 활용하는 건데요. 비엔날레 30주년을 맞아서 올해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0개 국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입니다. 도시 전체가 세계 현대미술의 전시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비엔날레의 외연 확장이나 광주의 문화관광 자산을 전 세계에 알리는 도시 문화외교의 장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Q. 미디어아트는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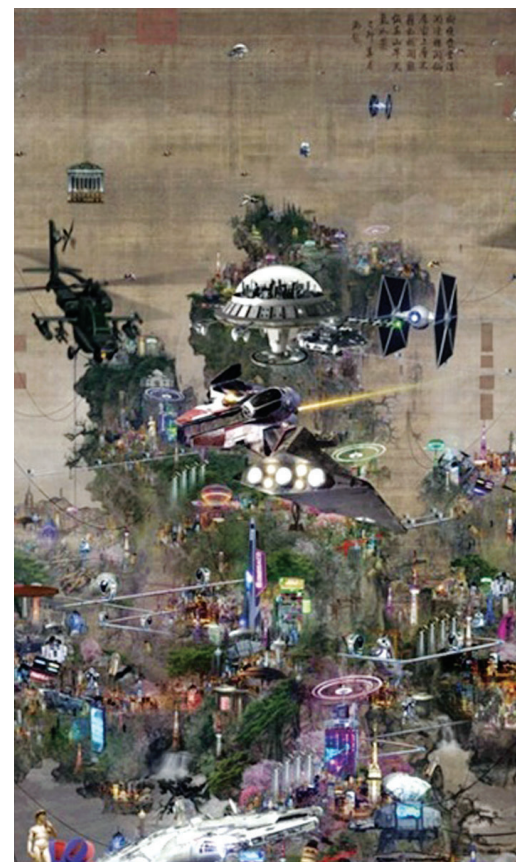
새로움이라는 이름으로 탄생하는 창작은 모두 그 뿌리가 있습니다. 미디어아트는 뉴미디어와 올드미디어로 나눌 수 있는데 넓은 의미로 사진이 발명된 19세기 이후 등장한 기술을 활용하는 모든 예술을 포함합니다. 좁게는 TV라는 매체를 통해 비디오아트를 창시한 백남준 작가를 미디어아트의 출발지로 보고 있습니다. 백남준 작가의 첫 비디오아트 전시로 알려진 것은 1963년 독일의 작은 도시에서 열린 '음악의 전사-전자 텔레비전' 전시회였습니다. 안방에 있던 텔레비전을 밖으로 끌고 나와 미술관에 전시를 했는데,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때려 부수는 전위예술을 통해 기존의 관념과 인식을 뒤엎은 획기적인 전시였습니다. 그 후로도 관객과의 쌍방향 모션으로 완성되는 '자석TV (1965년)'나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생중계 쇼 '굿모닝 미스터오웰 (1984)' 등 백남준 작가의 미디어아트 작품은 시대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디어아트는 기존 예술계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모나리자 페허



문명전투도

올해 광주비엔날레 30주년... '이이남스튜디오' 파빌리온 전시 예정
“광주 트라우마·과거사 재해석 ‘꿈 속의 광주’ 시대정신 전해졌으면”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마무리 단계...중요 관광자원 될 것

의 껍질을 깨고 나온 혁명적인 장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광주실감콘텐츠클러스에서 선보인 체험형 미디어아트 작품은 어떤 건가요?

‘꿈 속의 광주’는 1980년 5월을 경험한 저의 이야기입니다. ‘5학년 이이남의 꿈’이라는 설정을 통해 광주의 트라우마와 과거사를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에 저는 열두 살이었습니다. 방학처럼 주어진 일주일의 기억과 열 마를 광주에서 들려온 괴이한 소문들을 꿈 속의 꿈으로 표현했고 2D와 3D를 넘나드는 새로운 연출기법으로 몽환적인 공간을 만들어서 관람객들을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1980년을 경험했던 저의 기억과 감정을 통해 다소 무거울 수 있는 5·18민주화운동 이야기를 아이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더 깊은 꿈의 세계로 들어가는 체험적 몰입감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국가폭력에 맞서 저항했던 광주의 이야기가 전쟁과 분쟁으로 얼룩진 국제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새로운 시대 정신으로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Q. 미디어아트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저는 로망 같은 세계적인 조각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조선대학교 조소과에 입학해서 현대조각론 강의를 들었는데 당시 교수님이 비디오아트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거예요. 기존 회화와 조각에 한정돼 있던 제 미술 세계가 확장된 거죠. 본격적으로 미디어아트를 시작한 계기는 순천대학교 만화와 교수로 첫 강의를 시작한 때입니다. 1990년대 초반이었는데 학생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모습을 보고 미디어아트에 적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화와 4학년 수업에서 스톱모션 기법을 이용해 학생들의 흥상을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촬영 반죽에서 얼굴 모양이 잡히는 과정을 한 컷씩 촬영하고 적당한 음향을 넣어서 동영상상을 만들었습니다. 현대조각론 수업에서 알게 된 미디어아트를 직접 경험한 거죠. ‘미디어아트기 이런 거구나.’, ‘생명을 불어넣는 것처럼 살아 숨 쉬는구나.’ 환희가 느껴졌습니다. 제자들을 가

르치고 배우면서 영상 작업의 매력을 알게 됐고, 그때의 환희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Q. 뉴욕 아트페어에서의 반응은 어땠나요?

2007년 뉴욕아트페어에 출품했던 대표 작품은 김홍도의 ‘목죽도’를 재해석한 ‘디지털 목죽도’였습니다. 제 고향이 대나무의 고장인 담양이잖아요. 어렸을 때 대나무를 원없이 보고 자랐는데 겨울에 눈이 내리면 댓잎 위에 조금씩 쌓이다가 무거워지면 툭 떨어지거든요. 푸른 댓잎에 쌓였다가 떨어지는 눈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때의 감성을 오롯이 미디어아트로 구현한 게 ‘디지털 목죽도’였습니다. 사실 개막 전에는 서양 사람들에게 동양적인 한 국화가 다가갈 수 있을까 긴장을 많이 했는데 저의 작품을 본 현지 관람객들의 반응이 예상 밖으로 뜨거웠습니다. 작품 앞에서 자리를 뜨지 않는 관람객들을 보면서 감격스러웠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사실 뉴욕 아트페어는 원래 참여하기로 했던 선배에게 일이 생겨서 제가 대신 나가게 된 건데, 결과적으로 제 운명을 바꾼 계기가 됐습니다. 작가로서 처음 참여한 아트페어에서 첫 작품을 팔았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한편으로는 무명 작가의 작품을 구입한 제 첫 고객에게 살짝 미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웃음)

Q. 미디어아티스트로서 최초로 시도한 작품이 많다면서요?
미디어아트는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장르이기

도 하고 또 제가 도전을 좋아하다 보니 최초로 시도한 게 많습니다. 호남고속도로 광주IC 관문에 설치한 미디어아트는 무등산의 사계와 빛고를 광주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데요. 비정형 관문형 폴리로 세계 최초로 제작된 작품입니다. 2016년 부산비엔날레에서는 가상 공간에서 틸트브러시를 활용해서 세계 최초의 회화작품을 선보였습니다. 당시 관람객들이 각자 시선에 따라 작품을 해석할 수 있어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관을 가지 않아도 전자노트와 휴대전화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일정 금액을 내고 작품을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 앤전시회 등 세계 최초로 작업한 작품들이 꽤 많습니다.

Q.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가 광주의 경쟁력을 높일까요?

전 세계적으로 21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가 있는데요. 광주는 2014년 12월 1일에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했습니다. 세계 유명 도시들이 경쟁에 뛰어들었는데 당시 저를 비롯해 선후배 미디어아티스트들이 유네스코 본사에 가서 전시회도 열고 빛고를 광주의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최종 선정됐습니다. 광주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지정된 이후로 5개 권역을 중심으로 창의벨트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포함해 양림동과 사직공원 등에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선보이면서 광주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린츠시와 프랑스 리옹시의 경우 미디어아트를 도시의 관광자원으로 키우면서 도시 재생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는데요. 광주도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라는 문화자산을 도시 발전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Q. 미디어아티스트로서 바람이 있나요?

미디어아트로 도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주의 예술적 자산이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결돼야 합니다. 현재 5권역에서 추진 중인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벨트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는데요.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광주의 중요한 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도심 곳곳에서 미디어아트를 가까이에서 느껴볼 수 있는 공간들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충장로 상가에서 미디어아트를 만나는 거죠. 사람이 지나가면 상가의 쇼룸이 움직인다든지 상가의 옷들이 움직인다든지, 생활 속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작품들이 많이 설치됐으면 합니다. 광주 곳곳에서 만나는 미디어아트 작품들이 시민들에게 좋은 영감과 자극을 주면 도시의 삶도 훨씬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외에서 많은 분들이 광주에 오셔서 미디어아트와 현대미술을 즐기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지호 기자 1018hyohyo@gmail.com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제보청기

since 1982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